

# 죽음으로 가는 길을 본 사람의 이야기

---

## 1. 이어령 아내

□ " 눈물 한 방울"

몇몇 고교 선배들과 만나는 모임에서였다.  
선배 한분이 이런 말을 했다.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이어령 교수였어. 아직 이십대의 천재 선생이 칠판에 두보의 시를 써 놓고 해설을 하는데 황홀했었지.”

경기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그는 대학으로 옮겨 교수가 되고 대한민국의 지성의 아이콘이 됐다.

그리고 돌아가신지 세달이 됐다.  
말하던 그 선배가 덧붙였다.

“그 양반은 낮았던 대한민국의 정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지.”

나라마다 민족의 나침반이 된 천재들이 있다.  
일본인 후쿠자와 유키치는 개화 무렵 일본의 방향을 서구화와 민족주의로 잡고 교육에 헌신했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인의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고 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남겼었다.  
이어령 교수도 그런 역할을 한 것 같다.

이어령 교수가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할 무렵의 짧은 소감을 담은 시사잡지를 보고 메모를 해둔 것이 아직 남아 있다.

“나뭇잎들이 낙엽이 되면 빨리 줄기에서 떨어져야 하듯이 사람도 때가 되면 물러앉아야 해요. 새잎들이 돋는데 혼자만 남아 있는 건 삶이 아니죠. 갈 때 가지 않고 젊은 잎들 사이에 누렇게 말라 죽어있는 쪽정이를 보세요.”

그는 아직 윤기가 있을 때 가을바람을 타고 땅에 내려오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귀중한 철학이었다.  
죽음에 적용해도 될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다시 세월이 흘렀다.

어쩌다 화면에서 본 이어령 교수의 얼굴에 골깊은 주름이 생기고 병색이 돌았다.

어느날 몰라볼 정도로 살이 빠진 그의 모습이 보이고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어떻게 병을 맞이했고 죽음 앞에서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자의 죽음은 많은 걸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가장 위대한 설교였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어령교수의 부인이 말하는 장면이 흘러나오는 걸 봤다.

“남편은 항암치료를 거부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되는 데 항암치료를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남은 시간을 자기 맘대로 쓰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노인들은 할 일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남편은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은 컴퓨터로 글을 썼어요.

남편은 몽테뉴의 수상록처럼 날마다 일지를 썼어요.

그날그날 생각나는 걸 가장 자유로운 양식으로 쓴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손가락에 힘이 빠져 더블클릭이 안되는 거예요.

남편은 손글씨로 글을 썼어요.

처음에는 글 사이에 그림도 그려놓고 했는데 점점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림도 없어지고 갈수록 글씨도 나빠졌어요.

건강이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는 거죠.”

그는 무너져 내리는 몸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그에 대해 부인은 이렇게 말한다.

“남편은 걸으려고 애를 썼어요. 일어났다가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곤 했어요. 그러다 걸을 수 없게 된 걸 깨달았을 때 그렇게 평평 울더라구요. 그 머리가 좋던 남편이 기억이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치매가 온다고 생각하고 또 평평 울었죠. 남편은 두 발로 서서 인간으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중년의 미남이었던 그의 장관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다.

주위에 금가루라도 뿌린 양 번쩍거리는 느낌이었다.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녹이 슬고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 다음 순서인 죽음을 그는 어떻게 대면했을까.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남편은 보통사람보다 열배 스무배 예민한 예술가였어요.

죽음 앞에 강인하지 않았어요.

고통과 죽음을 너무 민감하게 느꼈어요.

너무나 외롭고 두려운 심정을 자신의 글에 그대로 표현했죠.

남편은 노트에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라고 썼어요.

그 노트를 다 쓰고 ‘눈물 한 방울’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책을 내려고 했죠.

그런데 노트 스무장을 남기고 저세상으로 갔어요.”

듣고 있던 인터뷰의 진행자가 물었다.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못 찾은 거죠. 죽어봐야 알 것 같다고 썼어요.”

진행자가 다시 물었다.

“제목으로 정한 ‘눈물 한 방울’의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예요.

남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게 진정한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남편은 남긴 거예요.”

늙음과 병 그리고 죽음 앞에 정직해져야 할 것 같았다.

□

가을을마시는사랑담은차한잔 피아골의단풍

<https://m.blog.naver.com/dream2284/222915339769>

Jdj

=====



고인은 앞서 2014년 위암 2기로 판정 수술을 받은 후 2020년 3월 22일 강원도 화천 감성마을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들의 간호 속에서, 장남 한얼씨를 통해 SNS에 간간히 근황을 알렸습니다.

장남 한얼씨는 3월 22일 고인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아버지께서 사흘째 응급실에서 (폐렴으로) 홀로 사투 중입니다"라며 "아버지의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라고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계속 투병 중 폐렴으로 4월 25일 밤 8시쯤 사망했습니다. **향년 76세.**



이외수씨 페이스북

한편 이외수씨는 1976년 결혼한 아내 전영자씨와 2018년 이혼 아닌 **졸혼**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4월 22일 아내와 결혼 44년 만에 결별하였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으나

결국 졸혼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다만, 갑자기 갈라선 건 아니고  
결별 위기는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우먼센스와 전 부인 전영자 씨의 인터뷰에서는 이외수와의 삶에  
대한 회고와 결별을 결심한 이유 등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당시  
졸혼 이유에 대해 전씨는 “**몸이 아프면서 모든 게 귀찮아졌다.**  
**남편을 도와 하루에도 30 명씩 손님을 맞는 삶에 지쳐버렸다. 철저히**  
**외로워보자 생각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더니 졸혼을**  
**권유하더라”**고 말했었습니다. 부부는 슬하에 2 남을 두고 있습니다.



투병 중인 소설가 이외수씨를 간병하고 있는 부인 전영자씨/이외수씨  
페이스북

한편 부인은 고인이 쓰러지자 제일 먼저 달려와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전씨는 뉴스 1 과의 통화에서 "이외수씨의 사망이유는  
뇌출혈로 장례식장을 확정하는 대로 SNS 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수는 1946 년생 올해 나이 76 세로 경상남도 함양에서 태어나  
1965 년 춘천교대에 입학했으나 1972 년 중퇴했습니다. 같은해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견습 어린이들'로 당선된 그는 3 년  
뒤인 1975 년 중편소설 '훈장'으로 문예지 '세대'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공식 등단했습니다.



고인은 장편소설 '들개', '칼', '장수하늘소', '꿈꾸는 식물'을 비롯해 시집 '풀꽃 술잔 나비',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등을 출간했습니다. 특히 출간한 20년이 넘는 첫 장편소설 '꿈꾸는 식물'에서부터 근작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소설은 40~50 만부가 넘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에세이 '하악하악', '청춘불패' 등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하악하악'에서 '존버'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며 '존버 정신' 창시자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존버'는 '존재하기에 버틴다' 등의 줄임말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버티자, 혼자서 버티지 말고 함께 버티자"는 대국민 문화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출간한 에세이 '불현듯 살아야겠다고 중얼거렸다'에도 '존버'라는 신조어의 창시자답게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몸부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세상에 대한 분노, 뼈아픈 자기반성과 고백을 서슴지 않았습다.

어린 시절 화가를 꿈꾸며 춘천교대 시절 미전에 입상한 경력이 있던 고인은 1990년 '4인의 에로틱 아트전'과 1994년 선화(仙畵)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투병 전까지 트위터에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글을 남기며 주목받은 고인은 팔로워 170만명을 거느려 소위 '트통령'(트위터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2008년 뉴라이트 교과서 문제부터 2016년 김진태 전 의원의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등 거침없는 발언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 촌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춘천에서 30여년간 지내던 고인은 2006년 화천군 감성마을로 이주해 투병 전까지 집필 활동을 했습니다. 1976년 결혼한 아내 전영자씨와 2018년 이혼 아닌 졸혼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부인은 고인이 쓰러지자 제일 먼저 달려와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한편 이날 류근 시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설가 이외수 선생님께서 오늘 오후 8시경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애통하고 비통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문학으로도 인간으로도 참 많은 것을 주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고인의 문하생이라고 밝힌 이형린 정의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에겐 기인이고 또 누군가에겐 곤대고 다른 누군가에겐 소설가지만, 내겐 선생님입니다."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

## 마당서 이삿짐 옮기는데 스타렉스 덮쳤다…남편 차에 아내 사망

70대 남성이 이삿짐을 옮기던 아내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쯤 장성군 한 주택 마당에서 70세 남성 A씨가 몰던 스타렉스 차량이 향아리 등 이삿짐을 옮기는 아내 B씨(65)와 60대 지인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지인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짐을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내리다 착오로 액셀을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 가) 사별 뒤 깨달은 것들... '그대 없음'을 더이상 감추지 않습니다

2021-04-19 13:53 2021-04-19 15:00

조현 기자 사진

**정신적 스트레스 1위 배우자 사망...배우자 먼저 보내고 마주한 삶**  
**"네가 복이 없어서" 편견·무시...홀로 자녀 키우는 어려움 이중고**  
**상실 후 깨달은 것들 "이토록 가벼워질 줄 알았다면 더 행복하게 살걸"**



사별자들이 생전의 배우자와 사진을 찍을 때 자주 하던 포즈를 각자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오균·이정숙·김민경·임규홍씨. 조현 기자

살다 보면 원치 않은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 시험에 낙방하거나 해고·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이나 사고·상해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 워싱턴의대의 토머스 홈스와 리처드 라헤 교수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를 매긴 적이 있다. 해고 47점, 질병 53점, 감옥 수감 63점, 이혼 73점 등이다. 최고의 스트레스 점수인 100점은 배우자의 죽음이다.**

특히 노화로 인한 자연사가 아니라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레 사별한 이들은 배우자의 육체적 죽음과는 다른 정신적인 극심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고백한다. 그런 비극적 아픔의 사례는 희귀병처럼 드문 게 아니다. 우리 주위에서 늘 발생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음을 입 밖으로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 충격에 따른 여러 후유증에다 사회적 편견에까지 맞서야 하는 사별자들은 감당해내기 어려운 고통에 '또 다른 죽음'을 경험한다.

그런 사별자들이 그 아픔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인터넷 사별 카페에서 만나 아픔을 나누다가 의기투합한 4명이 <나는 사별하였다>(꽃자리 펴냄)를 출간했다. 결혼 32년 만에 암으로 아내를 잃은 임규홍(65) 교수, 결혼 22년 만에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약사 이정숙(49)씨, 결혼 17년 만에 간암으로 남편을 보낸 초등학교 영어 전담 강사 김민경(50)씨, 결혼 16년 만에 난소암에 걸린 아내와 사별한 어학원 연구개발팀장 권오균(49)씨다. 최근 경기도 의왕시의 한 교회에서 이들을 만났다.

##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암으로 배우자를 잃은 세 사별자는 암 투병 중인 배우자가 생사를 넘나드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이미 파김치가 됐다고 한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도 기적을 고대했으나,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에게 당하는 고통까지 가중됐다. 권오균씨는 "간증치유집회에서 무조건 믿음으로 간증해야 병이 낫는다고 해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다고 했다'고 간증을 한 뒤 죽어갔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나마 사투를 벌일 때는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지만, 배우자가 떠난 뒤 그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김민경씨는 "유일하게 잠을 잘 때만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잔 것 같아 깨어나 보면 30분밖에 지나 있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그는 사별 뒤 명절 때 시가에 갔다가 남편을 닮은 형제들은 있는데 정작 남편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방 한구석에서 남몰래 통곡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들켰다. 집에 돌아온 그는 ‘슬픔을 전염시키고 싶지 않아 다음 명절부터는 아이들만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시어머니도 이해해주었다. 그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짬뽕을 시켜서 마치 남편과 마주 앉은 것처럼 한 그릇을 앞에 두거나 소주를 두 잔 따라 놓고 홀로 건배를 하며 상실감을 달래곤 했다.

임 교수는 “멀리 특강을 갈 때도 운전을 해주는 등 늘 엄마처럼 돌봐주던 아내가 사라지고 나니 내가 마치 고장 난 차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고, 죄인이 된 것 같아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사별동기는 함께 비를 맞고 아픔을 나누면서 강한 유대감으로 서로를 치유한다. 조현 기자

## 사회적 편견까지 이중고

사별자들은 상실의 고통에다 사회적 편견에까지 맞서야 한다는 게 그 무엇보다 두려웠다. 임 교수는 “여성 사별자들이 시집에서 ‘네가 복이 없어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어른들의 악담으로 또 한번 충격을 받곤 한다”고 전했다.

사별 뒤 2주 만에 새로운 학교로 발령을 받은 김민경씨가 동료 교사들에게 사별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도 편견을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였다. 그는 교사들 사이에서 가족에 관한 대화가 나올 때마다 움츠러들었고,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느라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이정숙씨는 41살에 과부가 된 엄마가 홀로되어 겪는 일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남들의 편견 어린 시선이 무엇보다 두려웠다. 남편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남편에 대해 묻자 "외국에 장기 출장을 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후회하며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뒤 아는 언니와 왈츠학원에 갔을 때 다른 수강생이 "왜 남편과 함께 오지 않느냐"고 묻자 "사별했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에 너무도 당혹해하는 그 수강생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삶이 왜 이렇게 거지 같은 거야?"라며 엉엉 울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그는 사별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선 사별을 딛고 일어서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에 공동 필자들에게 "나는 사별하였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선언을 책 제목으로 삼자고 제안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정숙씨의 남편 1주기 추모제. 이정숙씨 제공



## 한줄기 빛이 된 사별 카페

사별자들은 집중력 장애, 몸살, 불면증, 대상포진 등 온갖 후유증을 앓았다. 그런 이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찾은 한줄기 빛이 바로 인터넷 사별 카페였다. 김민경씨는 “**불면증으로 잠 못 들 때 사별 카페에 들어가면 한밤중에도 글이 올라온다.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며 아픔을 나눴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사별한 이들을 카페에선 ‘사별동기’라고 부른다. 사별동기들끼리는 더 강한 유대감이 있다. 사별동기들은 등산이나 독서 모임, 하루 만보 걷기 등을 하며 무너진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갔다. **자녀가 없는 권오균씨는 휴일에 집에 홀로 있을 때 특히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다. 어느 날 밤 극심한 우울감을 느낀 그는 이를 사별동기 단체 대화방에 고백했다. 그러자 그들이 밤 10시에 모두 나와 외로움을 달래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 사별 카페에선 ‘슬기로운 과부생활’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조금씩 치유돼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민경씨가 카페지기로 있는 사별 카페.

## 또 하나의 아픔, 사별자 자녀

사별자들은 양육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상실감 또한 심각하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는 잠자는 어머니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고아가 될까 두려워하며 남은 부모의 생존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아이도 사회적 편견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정숙씨는 10살 때 아버지의 죽음을, 20살 때 어머니와 할머니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는 **“아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행동하라는 어머니의 말을 따르느라 ‘바른 생활 어린이’로 행동하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이어 “아버지가 죽은 게 아이 잘못도 아닌데, 세상의 편견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충고보다는 한번의 포옹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죽음을 아이에게 말해주지 않거나 ‘아버지가 외국에 출장 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상처가 더 깊어진다고 한다. 따뜻하고 솔직하게 말해주고, 부모 중 누군가가 죽어도 아이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해줘야 한다는 게 사별 선배들의 조언이다.**

## 내미는 손, 받아주는 손

사별자들은 스스로 슬픔에 빠져 부모·형제도 상실의 슬픔을 겪는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많다. 이정숙씨는 “10살에 아버지를 잃었을 때는 너무 어려서 뭘 몰랐다 쳐도, 20살에 어머니와 할머니를 동시에 잃었을 때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했는데도 언니들이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괜찮은 척했다”고 말했다. 그는 **47살에 남편과 사별했을 때는 다르게 행동했다. 살아야겠기에 자신을 위로하는 이들을 거절하지 않고, 슬픔을 감추지도 않는 쪽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사별 15년차인 지인을 찾아가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또 이웃 부부가 싸준 점심 도시락을 받아들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밥을 삼켰다. 매일 안부를 묻는 언니들의 전화를 받고, 친구들과 여행도 갔다. 그는 **“사별자의 형제자매와 이웃들은 사별자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사별자들도 이들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받아주어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권유했다.



권오균씨는 요즘도 아내와 찍은 사진을 보며 외로움을 달랜다. 권오균씨 제공

## 상실 후 깨달은 것들

사별자들은 “이토록 빨리 가버릴 줄 알았다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민경씨는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힘들면 언제든 사표 써’라고 말해주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세상에 버려진 느낌”**이라며 **“그때는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다”**고 안타까워했다. 임 교수는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다면 돈 한푼 쓰는 데 벌벌 떨지 말고 더 충분히 즐길 걸 그랬다”**며 **“이제 하고 싶은 건 미루지 않고 당장 한다. 얼마 전 제주 한달 살이도 했다”**고 했다.





이정숙씨는 “남편이 남긴 메모를 보니 할 필요 없는 고민의 흔적들이 있었다”며 “그렇게 떠날 줄 알았더라면 쓸데없는 고민을 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겐 시간도, 통장 잔고도 있었는데, 가지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느라 가진 것들을 놓쳐버렸다”며 “남편도 나도 부족함 많은 사람이지만,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결국 함께 있음을 소중히 여기고 더 행복하게 누리라는 게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조언이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

## 2. 텍사스 총기 난사: 교사 아내 잃고 슬퍼하던 남편 심장마비로 사망

2022 년 5 월 27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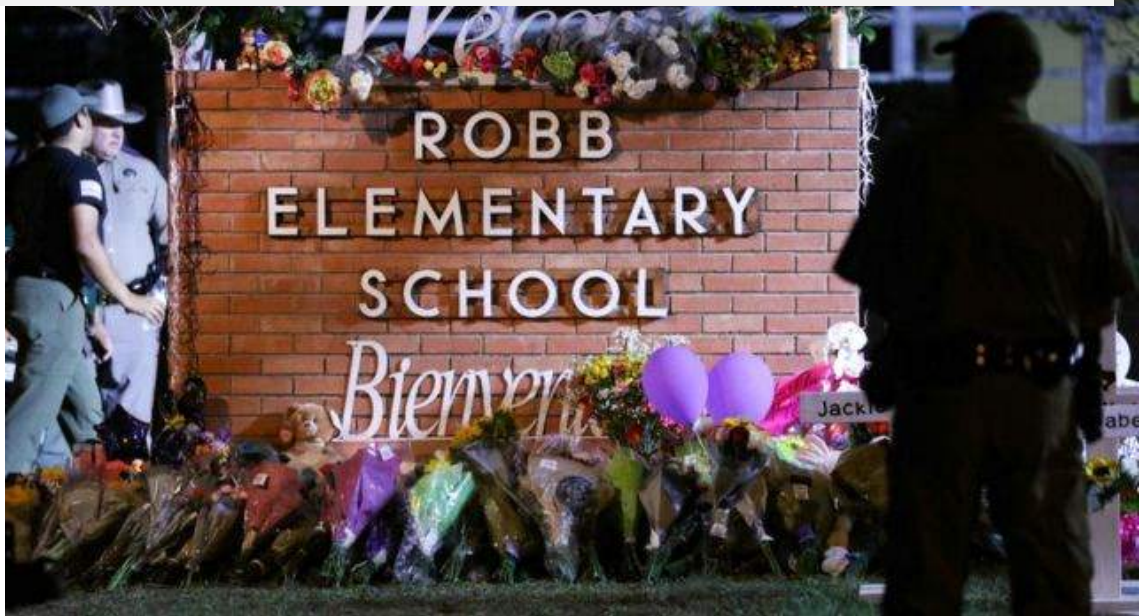


사진 설명  
지난 25 일 사건이 발생한 롬초등학교 바깥에 희생자들을 위한 헌화가 놓여 있다

미국 텍사스주 남부 유밸디의 롬초등학교에서 24 일(현지시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살해당한 교사의 남편이 사건 이틀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가르시아는 롬초등학교에서 23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 어마 가르시아의 남편이다.

아내 어마는 이번 사건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 19 명과 교사 2 명 중 하나다. 결혼 24 년 차인 가르시아 부부는 슬하에 자녀 넷을 뒀다.

어마의 조카인 존 마르티네즈가 트위터를 통해 조 또한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알렸다.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지는 소식입니다. 제 고모 어마의 남편 조 가르시아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보살펴주세요."

미 폭스방송사 계열의 현지 언론사 조의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로 보도했다. 가르시아 부부의 자녀들은 아들 둘과 딸 두 명으로, 모두 12~ 23 세 사이다. 유밸디에서 벌어진 이번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마르티네즈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들이 어마를 발견했을 땐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아이들을 품에 안은"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마르티네즈는 희생자를 위한 모금 페이지에 "어마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영웅이셨다"고 적었다.

어마는 이번 사건에서 목숨을 잃은 또 다른 교사인 에바 미렐레스와는 5년간 함께 근무했으며, 이 둘의 교사 경력을 합하면 40여 년에 이른다. 한편 남편 조의 사망 소식은 미국 내 총기 규제 개혁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지난 26일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에 모인 시민단체와 몇몇 의원들은 더 많은 총기 규제 조치를 해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출신 크리스 머피 코네티컷주 상원의원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과연 오늘은 살 수 있을까' 궁금해하며 등교하는 나라는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 설명,  
희생자를 위한 모금 페이지인 '고펀드미'에 올라온 가르시아 부부의 사진  
=====

# 1) 폐인되어 사망한 아내... 팔순 남편 이 정부에 울부짖습니다

22.06.09 17:45|최종 업데이트 22.06.09 17:45|

변상철(knung072)

원고료로 응원하기

김상호씨(1941년 생)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군이다. 인민학교 3학년(10세)을 다니던 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2년여 간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가 어렵게 속초국민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렇게 속초국민학교를 졸업(3회)했고, 곧바로 속초중학교에 진학해 또 다시 어렵게 중학교 졸업장을 땀다.(9회)

중학교 3학년 2반이던 시절, 경제사정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김씨는 다른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말에 깊은 서글픔을 느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 재학 중에도 학교 월사금을 내기 위해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방학 때마저도 오징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나마 절박하게 돈이 필요한 어린 학생이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 없는 가장 쉬운 일은 배를 타는 것이었다.

비록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해야 했지만 뱃일을 하면 용돈도 벌 수 있고, 먹고 싶은 호떡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배를 탈 때는 뱃멀미가 심해 굶은 채로 일했다. 굶주린 배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그제야 먹지 못한 저녁끼니까지 한꺼번에 먹곤 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자 계속 속초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고 한다. 배 타는 것이 싫어 잠시 속초를 떠나도 봤지만 이내 다시 속초로 돌아왔다. 방황하던 그가 속초에 정착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였다. 지금도 김상호씨는 경북 풍기에서 살던 아내를 속초로 데려왔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삼시세끼를 걱정하던 그와 달리 아내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살림의 집안에서 귀히 자랐다. 그런 아내가 오직 남편 김상호씨만을 보고 풍기에서 강원도 속초로 왔던 것이다. 자신만을 믿고 평생을 같이 하자던 아내가 풍에 걸리고, 납북사건으로 인해 아내를 돌보지 못한 사이 아내의 중풍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아내가 중풍으로 세상을 떠나던 해인 1988년까지 배를 타며 아내를 돌봤다. 그러나 결국 아내는 세상을 먼저 등졌고, 김상호씨는 '아내도 없는데 험한 바다에 나가 돈을 벌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뱃일을 그만 두고 '아바이마을'로 향하는 '갯배' 선착장에서 일하며 지냈다.



▲ 청호동, 이른바 "아바이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표지판. 이곳에서 김상호 씨는 평생 이곳에서 바다를 보며 살았다.

© 변상철

김상호씨는 한국전쟁 시 속초로 피난 온 월남피난민으로, 어린 시절부터 배를 탔다. 선원이라고는 하나 1년에 몇 개월 정도만 배를 탔기 때문에 매우 경험 많은 정식 선원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정말 돈이 궁할 때만 배를 탔다고 했다.

"내가 승선했던 승해호의 선장 김종인씨는 같은 동네에 사람으로, 전쟁 전부터 같은 고향인 함경남도 북청 사람이었고, 나와 같이 남북되었던 김성학이의 부친이기도 해요.



한 1970년 경이었다. 내가 속초에 있기 싫어 외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선장 (김종인)이 나에게 '바람 들어 (외지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배나 같이 타자'고 제안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리자 싶어 그 해 오징어 철부터 승해호를 타기 시작했어요.

오징어는 여름 한 철에 나니까 그때만 배를 탈 수 있어요. 승해호는 배 구조 자체가 오징어잡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조업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가고쟁이로 시작을 했죠."

당시 승해호는 다섯 명의 선원과 계약직과 같은 '가고쟁이'로 구성되었다. '가고'는 '광주리, 바구니'라는 뜻인데, 대나무 광주리에 낚싯대와 먹을 것 등을 담아 어깨에 메고 배를 타고 저녁에 나갔다가 이튿날 아침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빗대어 '가고쟁이'라고 불렀다. 배가 바다에 한 번 나갔다 들어오면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는 사람이 생기고, 빠지는 선원만큼 새로운 선원을 다시 보충해야 했기 때문에 바다로 나갈 때마다 '가고쟁이'는 매번 바뀌었다.

속초에서 오징어가 많이 나고 돈벌이도 괜찮다는 소문이 나던 때라, 전라도, 경상도(특히 옥지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고 한다. 일손이 모자랐기 때문에 외지인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어른만큼 힘을 쓸 수 있다면 묻지도 않고 배에 태우던 시절이었다. 선원 생활은 복한이 고향이었던 그에게 출신을 묻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노동이었다.

김상호씨가 승선했던 승해호는 '통통통' 소리를 내며 시간당 7~8노트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야끼다마(소구기관 엔진) 엔진을 장착한 목선으로, 납북사건 당시 23명 정도가 승선했었다고 한다.

"그 때 나로서는 배의 구조나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어로저지선이 북위 38도 30분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요즘처럼 배에 성능 좋은 무전기나 GPS, 레이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나침반(compass) 정도만 있던 시절이었어요.

당시 선장들은 해도나 해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거니와 행여 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도를 읽을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승해호 경우도 선장이 해도를 읽는 것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대개는 직감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갔으니 들어올 때는 반대쪽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정도의 경험과 추측에 의해서 운항을 하는 거죠. 조금 아는 선장들이라고 해봐야 조류(간조와 만조)를 계산해 방향을 잡는 정도랄까."

통상 바다로 나가면 육지와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당시 사무장이었던 김상호씨는 선장이 보는 나침반을 결눈질로 보며 '지금 배가 약간 남쪽으로 가는구나, 약간 서쪽으로 가는구나'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당시 선장들이 대체로 그랬던 것처럼, 승해호 선장도 운항을 계산해 자기 배의 위치와 방향을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북한에 납북되던 1971년 7월 27일 새벽 6시, 승해호는 조업을 마치고 속초로 귀항하고 있었다. 그날은 소위 '안개오줌'(안개비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라는 뜻의 방언)이 바다에 내리고 있었다. 굵은 날씨로 인해 조업하는 동안 희미하게 보이던 육지의 등대 불빛마저도 귀항할 때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밤에 주로 일을 하는 선원들은 늘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귀항하는 동안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사실, 북한 경비정이 나타난 순간 일어난 일들은 지금 별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북배가 왔다고 소리치는 건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완전히 얼어버렸거든요.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나는 함경도 출신으로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북한 아이들이 보기에 나는 완전히 반동분자였기 때문에 북으로 끌려간다면 죽을게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남한에 있는 부친은 중병에 걸려 있지, 아내는 중풍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 그런 상황에 나까지 납북된다고 생각하니 미치겠는 거라. 배 타기는 싫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승선했던 것인데 북으로 끌려가게 되니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는 1972년 9월 7일 귀환할 때까지 1년 여 동안 북에서 억류생활을 해야 했다. 김상호씨는 귀환 시기가 7·4 남북공동성명 직후였던 것으로 볼 때, 북한이 남한 선원들을 정치적으로 이



용하기 위해 고의로 납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실제 72년 5월과 9월 사이에 돌아온 동해안 선원들은 300여명 가량 된다.

1년여의 억류생활을 끝내고 남한으로 돌아온 선박은 김상호씨가 탔던 승해호를 포함해 모두 7척이었다. 귀환한 배들은 해경 배에 이끌려 속초 부두로 들어왔고, 선원들은 배에서 내려 양쪽으로 도열해 있는 경찰들을 통과해 바로 버스에 태워졌다. 그리고 경찰의 인솔에 따라 속초 시청 별관 2층 회의실로 수용되었다.

"북에 있을 때는 남한으로 돌아가 가족 볼 생각에 정신이 없더니, 막상 돌아와 조사받게 되는 처지가 되니 혹시 형(刑)이 떨어져 영창을 살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더라고. 사람마음이 그리 간사하다니까.

시청 회의실에 대기하고 있으면 수사관이 와서 선원을 호명해요. 그럼 조사를 받기 위해 다른 배 선원 몇 명과 섞여서 수사관 뒤를 따라가요. 속초 시청 건너편 현대극장 부근에는 여인숙이 많았는데, 그 중 'ㄷ'자형 여인숙으로 갔던 것 같아요.

방마다 한 명씩 들어가 조사를 받는데, 방마다 수사관이 두 명씩 있었어요. 그 방에 있으면 여기저기서 '으악'하는 비명소리, 쥐어터지는 소리, '이 새끼 처넣어, 잡아넣어'하는 고함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 수사관이 묻는 말에 '아니오'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각목으로 사람을 개 잡듯 때리는데 어떻게 '아니오'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어로저지선의 정확한 위치도 몰랐던 김상호씨가 '너 어로저지선 넘어갔지?'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던 것도 그때였다. 해도(海圖) 한 장, 전자장비 하나 없던 배에서 월선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나 김상호씨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조사를 자행하는 수사관들이 작성해 놓은 조서내용에 '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시청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구타로 부축 받으며 들어오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고 한다.

그렇게 시청에서 조사받고 풀려난 김상호씨는 부친과 아내가 걱정되어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그러나 납북되던 해에 중풍에 걸렸던 아내는 그 사이 치료시기를 놓쳐 폐인이 되어 있었다. 돈이 없어 약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해 아내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 김

상호씨는 경상도 풍기에서 지명도 모르는 '속초'라는 곳으로 와서, 자신과 결혼하여 함께 지내며 고생했던 아내를 그렇게 '놓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 모든 것을 버렸으나 소용없는 일이 되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 김상호씨는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2004년경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입원했던 날이 908일, 통근치료 받은 날이 211일, 모두 합해 총 1119일 동안 병원생활을 해야 했다.

"정말이지 병원침대에서 똥오줌을 받아내는 식물인간처럼 지낼 때는 살아서 뭐하나하며 나쁜 마음도 몇 번 먹었어요. 몸이 나아서 나가 봐야 또 빨갱이 취급 받고, 연좌제로 자식들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독하게 마음먹게 되더라고요.

주위 노인들이 '새끼가 뭐 소용있겠음메? 젊었을 때 재혼합세. 내가 종신을 설 테니'라며 재혼 권유도 자주 했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고민이 많이 되더군요. 과연 내가 새 장가를 간다면 내 새끼들이 제대로 클까? 뼈뼉하게 나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때마다 내린 결론은 '이거는 아니다.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해 이렇게 감시받는 생활을 하는데 내 새끼들만은 어떻게든 공부시켜야 한다'이거였어요."

다행히 김씨의 '자식 세 놈'은 모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바이마을로 들어가는 관광명물 중 하나인 '갯배' 안내원으로 일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여기저기 몸이 아파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국가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배라면 지겨워요. 아바이마을에서 일할 때 갯배만 봐도 지긋지긋해. 누가 납북되고 싶어서 납북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어로한계선을 지켜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해



▲ 김상호 씨는 남북귀환피해 이후 청학동으로 들어가는 소위 "갯배" 선착장에서 일을 하며 살았다.

◎ 변상철

군이나 해경은 우리 배가 이북에 끌려가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말ियो. 자신들의  
과오는 안중에도 없고 북에서 무슨 지령을 받지 않았냐며 죄 없는 사람을 고문하고 두들겨  
패거나 하니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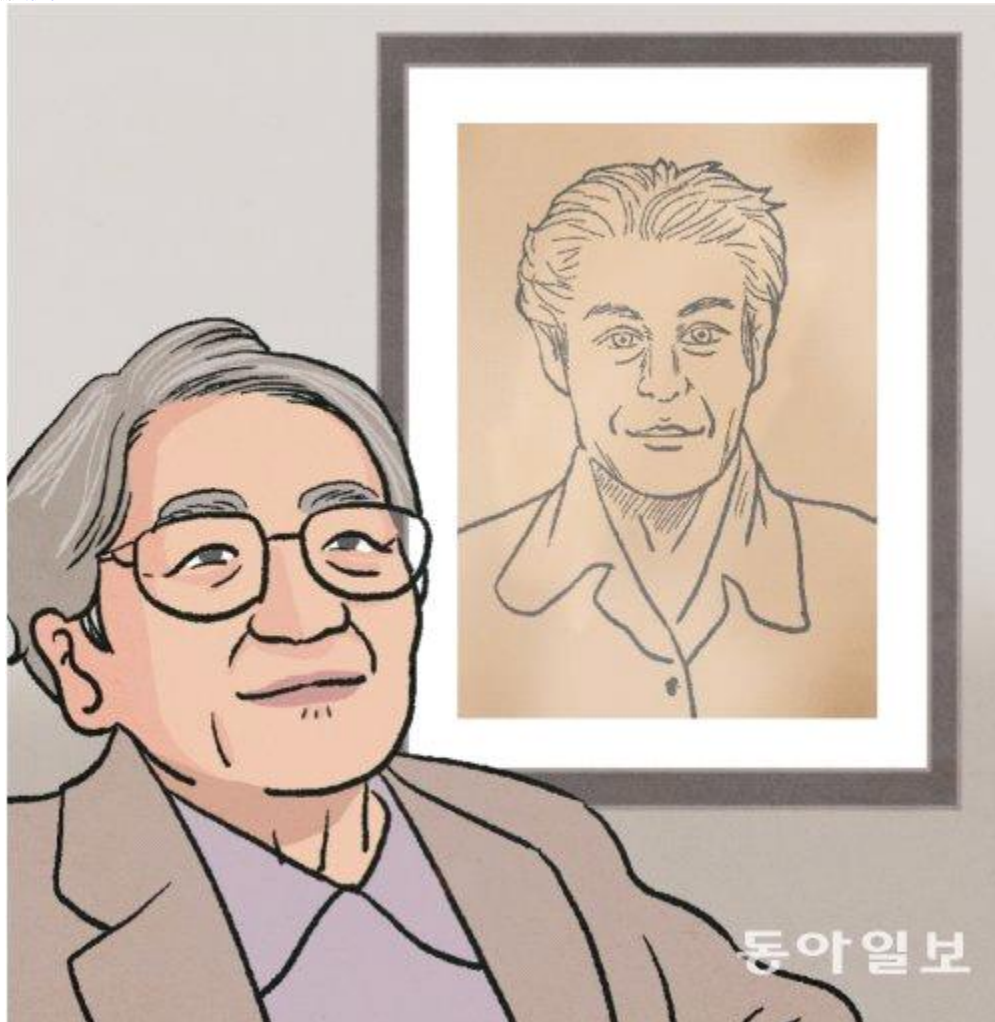
우리주변에는 국가나 집단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우리와  
섞여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고통의 기억 속에서 지내고 있다. 혹시 속  
초에 들러 갯배를 탄다면 그 바다에 이어져 있을 분단의 선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길 바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3. 요절한 남편 평생 사랑, 이중섭의 아내[이즈미 지하루 한국 블로그]

이즈미 지하루 일본 출신·서경대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교수  
입력 2022-10-07 03:00 업데이트 2022-10-07 09:54



일러스트레이션 박초희 기자 choky@donga.com



이즈미 지하루 일본 출신·서경대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교수

“모친께서는 멋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프시지도 않고 평온하게  
가셨어요.”

올 8 월 13 일, 화가 이중섭(1916~1956)의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山本方子·1921~2022) 여사가 향년 101 세(한국 나이 102 세)로  
별세했다. 그의 둘째 아들 야스나리(泰成) 씨는 나에게 전화로 이처럼  
그녀의 인생과 가시는 모습을 전했다.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국민화가 이중섭의 그림에는 힘찬 소,  
은박지나 엽서에 꽃게와 물고기와 노는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 그림 속의 여인이 바로 아내 마사코다.  
이중섭은 그녀를 ‘이남덕(李南德)’이란 한국식 이름으로 부르며 무척  
사랑했다.

두 사람은 일제강점기인 1939 년, 일본 도쿄 소재  
문화학원(文化學院)에서 선후배로 만나 깊은 사랑에 빠졌다. 1943 년  
이중섭이 귀국하자 마사코는 광복 직전 현해탄을 건너 그의 고향

원산에서 결혼했다. 두 아들을 두며 평온하게 지낸 것도 잠시였다. 6·25 전쟁이 터지자 부산과 제주도로 계속 거처를 옮기며 지냈다. 결국 1952년 마사코는 친정아버지의 사망과 가난을 이유로 두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귀국했다. 그다음 해 이중섭은 일주일간 일본에 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지만, 그 후 만나지 못하고 1956년 서울에서 4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이중섭과 마사코의 결혼생활은 10년, 그중 같이 살았던 기간은 7년. 마사코는 어린 두 아들을 가진 채 35세에 과부가 됐다. 양재를 직업으로 삼았고, 생명보험 회사에 근무한 적도 있으며, 환갑의 나이에 도쿄 긴자(銀座)의 기독교용품점에서 일을 시작해 80세까지 근무하며 지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이중섭 그림을 좋아했다. 1989년 대학원에 다니며, 그곳에서 친해진 친구의 아버지인 나전 작가 이성운 선생이 경남 욕지도에서 이중섭과 같이 그림을 그리며 지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그를 가깝게 느끼게 됐다. 그리고 부인 마사코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6년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전시 '이중섭, 백년의 신화'에서다. 이 전시에서 가족과 일본어로 주고받은 꽤 많은 엽서가 공개됐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나의 착한..." 등으로 시작하는 편지(엽서)글들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 나는 이때 마사코 여사가 살아계신 것을 알았다.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여러 가지를 여쭙고 싶었다.

"아버지가 열정적이었다면 어머니는 심지가 곧고 차분한 분이셨어요. 낮도 좀 가리셨고요. 말 안 듣는 아들에게 큰소리 한번 치신 적이

없었어요. 아마도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서로 상반된 성격이라  
오히려 끌렸던 것 같아요.”

이런 마사코 여사가 크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 1979 년  
한국에서 본 연극 ‘화가 이중섭’에서 마사코가 남편을 버리고 일본에  
귀국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고, 특히 가족을 찾은 이중섭을 장모가  
냉대했다는 부분이다. 마사코의 부모님은 기독교인으로 두 사람  
사이를 반대하기는커녕 한국에 갈 때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해 줬고,  
사위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일본에 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분이었다. 이 오류의 시작은 원작인 1973 년에 발간된 고은 작가의  
소설 ‘이중섭 그 예술과 생애’이다.

야스나리 씨가 어머니를 그리며 가장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김치’라고 했다. 마사코 여사는 원산에서 시어머니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 늘 저녁 식탁에 김치를 올렸다고 한다. 야스나리 씨는  
“나는 어머니의 김치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추억했다.

“아버지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흰소’입니다. 일본에서 한  
번도 아버지 작품 전시를 하지 못했는데, 일본에서 아버님의  
작품전을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1953 년  
일본에 일주일 오셨을 때 안겼던 희미한 기억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슬프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야스나리 씨)

주옥같은 작품들을 남기고 요절한 이중섭, 평생토록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홀로 헌신적 삶을 산 마사코. 가족을 사랑했고  
아꼈던 두 사람의 사랑을 떠올리며 마사코 여사의 명복을 빌어 본다.

이즈미 지하루 일본 출신·서경대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교수

=====



## 1) 30년간 사실혼 '아내의 눈물'...남편 전역·원부 인 사망뒤 혼인신고

법원 "중혼에 해당 유족연금 불인정"

3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았다 해도 법률상 다른 아내가 있다면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57·여)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국방부는 김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여고생 때 이미 유부남이던 정모씨(2008년 사망)를 만나 교제했다. 김씨와 정씨는 1979년부터 사실상 부부처럼 살며 80년과 82년에는 두 아들도 낳았다. 군인으로 복무하던 정씨가 81년 전역한 후에는 본가 식구들의 양해 아래 김씨, 두 아들과 함께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살았다. 그러나 정씨는 62년 원 부인인 임모씨와 결혼한 이래 96년 임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2년 뒤인 98년에야 김씨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다.

김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와 정씨가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  
정씨의 퇴직 이후”라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남편 정씨가 군인으로 재직할 당시 법률적인 아내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김씨는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  
다. 이어 “군인연금법상 사실혼 관계라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  
만, 김씨의 경우 법률상의 아내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김씨는 중  
혼관계의 사실혼으로밖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특히 정씨가 전부인인 임씨가 숨질때까지 법률적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함께한 점등을 보면  
임씨와의 법률혼관계를 끝낼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  
단했다.

=====

밀양서 강에 뛰어든 아내 구하려던 남편 사망

아내는 수초에 걸려 있다 구조돼

기사입력 2020/07/23 [16:26]

박명찬 기자

경남 밀양에서 부부 싸움 중 찾김에 죽겠다며 강물에 뛰어든 아내를 구하기 위해 뒤따라 들  
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남편 A(4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11분께 밀양시 예림교 하류 100m 지점에서 강물에  
뛰어든 아내 B(33)씨를 구하기 위해 뒤따라 들어갔던 A씨가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B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가곡동 둔치에서 성격 차이로 다툰 후 찾김에 죽겠다며 강물로  
뛰어들었으며 A씨도 뒤따라 들어갔다.

먼저 강물에 뛰어든 B씨는 수초에 걸려 있다 소방대원들에게 무사히 구조됐다. 그러나 A씨가  
발견되지 않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예림교 인근을 수색하던 중 입수  
지점 인근에서 사체를 발견 인양했다. 박명찬 기자

=====

## 가) 방배동 미라, 7년간 남편 시체와 동거한 아내... 남편 사망 인정못해

입력 2014-03-0

이상은 인턴기자기자  
lse@kyeongin.com

'방배동 미라' 7년간 남편 시체와 동거한 아내 진실은?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방배동 미라 미스터리'에서는 7년 간 남편의 시신을 보관한 아내를 둘러싼 각종 소문들의 진실을 추적했다.



▲ 방배동 미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2013년 11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서울의 한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간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한 남자가 7년째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

주민들은 그 남자의 집 주변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 증언하며 숨진 사람을 집안에 '미라'로 모셔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밖에서 볼 수 없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그 집을 찾아갔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제작진은 같은 해 12월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은 경찰과 함께 집안 내부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실 한 가운데에서 한 남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7년 동안 완전히 부패되지 않고 미라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증언에 따르면 아내는 시신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잤으며, 심지어 시신을 씻긴다고까지 했다.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식사를 안 하고 대소변을 안 해서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세 자녀와 남자의 친누나도 모두 남자가 살아있다고 믿었다.

제작진은 직업이 약사인 아내가 시신에 방부처리를 했다는 의심을 했지만 부검 결과 시신에는 방부 처리 흔적이 없었다.

방송은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실제 남편의 사망을 인정하지 못한 행동으로 결론내렸다.



▲ 방배동 미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